

月刊美術

REPORT · INTERNATIONAL ART FA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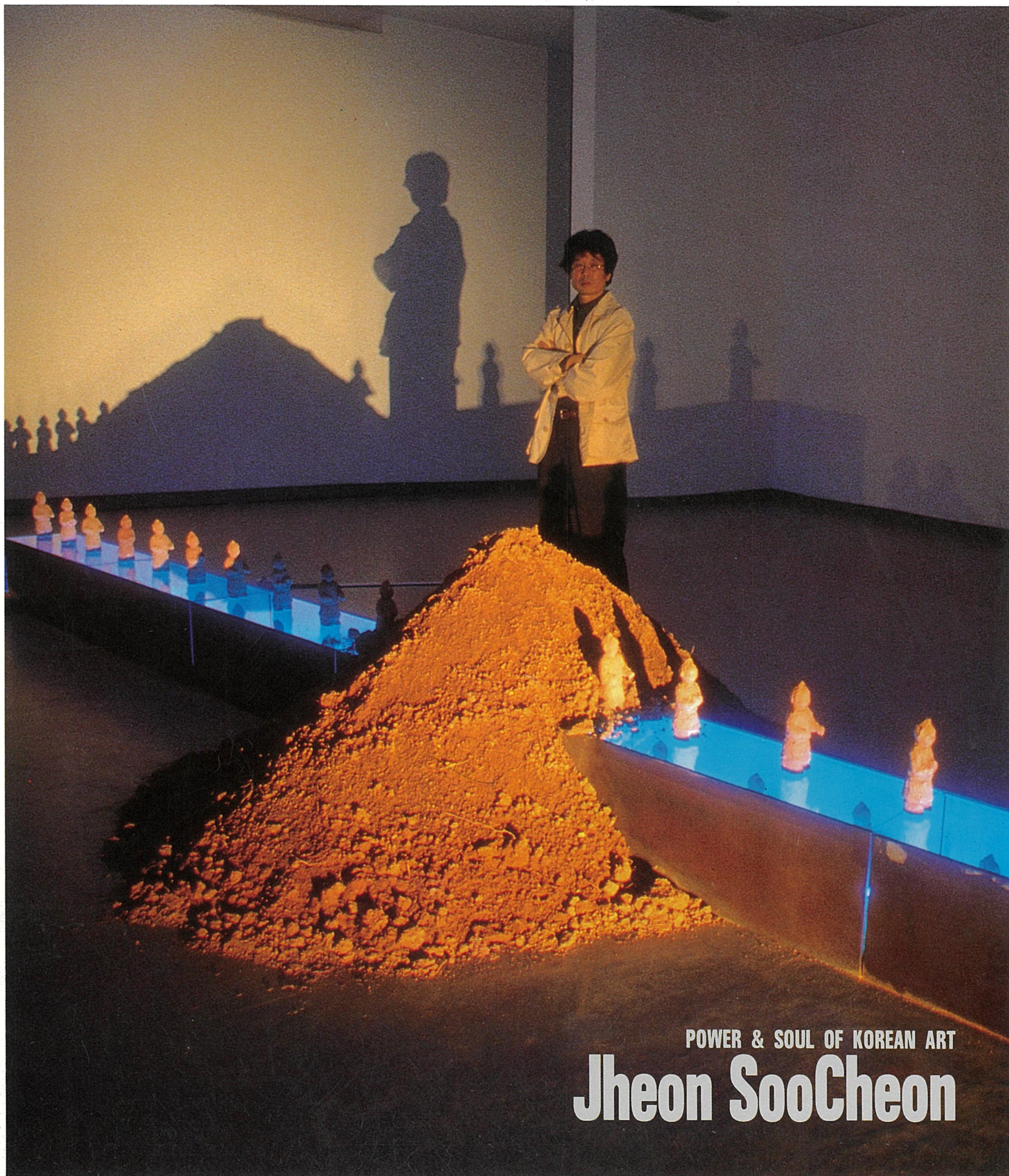
해외전시 · 이태리의 문화적 변이
전시초점 · 장욱진회고전 서울관화미술제
연재 · 현대미술의 용어와 해석

April 1995

4

月刊美術 1995년 4월 1일 발행
(毎月 1회 발행) 제7권 제4호
1988년 10월 19일 등록
라 3806 1963년 12월 22일
제3종 우편물 (나) 급인가

THE MONTHLY ART MAGAZINE WOLGANSOOL Photo / Lee WheeSae



POWER & SOUL OF KOREAN ART

Jheon SooCheon

풍자와 해학이 깃든 현실 이야기

누구를 가리켜 ‘이 시대 최고의 로맨티스트’라고 불렀듯이 안창홍이야말로 ‘이 시대 최고의 리얼리스트’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지 않나 싶다. 이 말은 결코 수사나 과장된 칭찬이 아니라 필자의 미적 판단에 의해 내린 결론이다.

그가 그려내는 그림의 주인공들은 오늘 이 땅의 현실에 두 발을 딛고 있는 생명체들이다. 술집의 작부, 마담, 게이(여장남자), 광대 등 척박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은 흔히 남다른 인생역정을 지니게 마련이다. 안창홍은 치밀한 관찰로, 그러나 따뜻한 애정을 바탕으로 이들의 삶을 형상화시키고 있다. 사각의 평평한 화면 위에 화려한 색채의 스펙트럼으로 빛어내는 안창홍의 그림들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수와 연민을 기저로 하고 있다.

그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이 연민의 감정은 그러나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풍자와 해학이 깃들인 화면의 이면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은 안창홍의 작품을 즐길 때 맨 끝에 느껴지는 감정이다.

“거침없이 앞을 향해 발을 내디뎌야 한다. 그 끝없이 펼쳐진 삶의 여정, 그 길 위에 찍히는 고뇌와 상처로 얼룩진 무수한 발자국들, 그것이 바로 굴복하지 않는 빛나는 정신의 산물인 그림이다. 삶이 그림이고 그림이 곧 삶이다.”

삶과 그림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안창홍의 이와 같은 사고는 리얼리스트로서 세계를 바라보는 작가 자신의 시각에 늘 명징성을 부여해 왔다. 소재로부터 모티프의 설정에 이르기까지 그의 작업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언제나 현실이다. 복잡

하게 얽힌 전자회로와 같은 삶의 현실을 투명하게 직시하고 이를 명료하게 형상화시킨다는 것은 역시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안창홍은 특유의 변칙이는 재치로 이를 해결하고 있다.

단순한 구도와 정통적인 초상화의 포즈를 통해 안창홍이 보여주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이로 인해 빚어지는 갈등, 소외, 불안 따위의 정서이다. 인간정서의 본질을 이루는 이 같은 심리적 기저들은 남녀 양성의 倒錯된 모습을 담은 그의 인물상이나 혹은 개

나 호랑이와 같은 동물의 모습 속에 각인돼 있다. 그의 그림은 아름답다. 그러나 그것은 섬짓하도록 서늘한 아름다움이 아닐까.

〈윤진섭·미술평론가〉

안창홍은 1952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한국미술 청년작가회전, 한국현대미술 80년대 조망전, 현실과 발언 동인전, 우리시대의 초상전, 화랑미술제, 민중미술 15년전, 동학 1백주년 기념전, 내일의 제안 차세대 시각전 등 다수의 기획 단체전에 출품했다. 이번 전시는 열 번째 개인전이다. 카뉴 국제회화제에서 특별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오렌지빛 청춘〉
천에 아크릴릭
130.3×89.4cm 1994
▶ 〈마담과 아티스트〉
천에 아크릴릭
145.5×97.5cm 1994

